

의복소비 및 활용실태 분석

徐英淑 · 趙必嬭* · 具銀鈴**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A Survey on the Pattern of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Clothes

Young-Sook Suh, Pyl-Gyo Jo* and Eun-Young K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struct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序論

II. 理論的背景

III. 調査方法 및 節次

IV. 結果 및 論議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ore rational way to manage clothing. The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daily clothing practices. 112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majoring clothing, textiles, and /or home economics have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With the samples, frequency,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ANOVA, and Scheffe test are pursued respectively. Main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Female college students are found to possess 70 units on average. They possess more of casual clothes such as polo · T shirts, casual pants, and casual shirts(from the highest frequency in order). They possess less of formal clothes such as one-piece and two-pieces (from the lowest frequency in order).
2. It is found that 12 per cent of the possessed clothings are not used at all during the year. The unused rate is higher for the formal suits while it is lower for the casuals.
3. The possession pattern is affected by clothing life style factors: brand and economic factors for the casuals; fashion and individuality factors for the formals.
4. The possession pattern is also affected by the purchasing behavior factors, purchasing price among others.

I. 序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의생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의생활경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의복기능 만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의복구매, 소지, 활용 및 폐기과정에서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의생활 경영은 의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의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훼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기능이 신체보호 등의 대내적 기능 위주에서 자신의 개성, 신분, 역할 등을 나타내는 대외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의복을 가지려고 함으로써 의생활의 낭비적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개인의 활동범위가 가정·일·사교·레저 등으로 다양해지고 개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의복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유행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유행주기가 단축되어 의복의 착용수명이 짧아짐으로써 의복은 하나의 소비품이 되고 있다.

의류제품 생산자는 다양한 소재개발과 제품의 차별화 및 다양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의류제품의 대량화, 다양화를 가져왔고, 유통과정에서의 적극적 판매촉진 활동 등을 통하여 의류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류소비의 고도화, 다양화 경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의생활 환경 변화가 소비자가 소지하는 의복의 종류와 양의 증가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류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의복은 소지수에도 제한이 없고 사람들의 기호나 취미에 따라서 욕구도 무한하다. 이로 인하여 의복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합리적 운영이 결여되면 의복자원이 낭비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피복비 낭비는 물론 국가경제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의복구매, 소지, 활용 및 폐기로 구성되는 의생활 전과정에서 합리적 경영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의복소지 및 활용단계에서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소비

자들이 의생활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의류자원 절약과 환경보존뿐 아니라 소비자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기저(基底)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전체 의복所持數 및 의복품목별 소지수 등 의복소지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소지하고 있는 의복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 의복품목별 소지수와 死藏 의복수 및 의복사장률을 조사한다.

(2) 의복품목별 구입가격과 의복착용일수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의복소지수에 대한 의생활양식, 의복구매빈도 및 환경적 변인(가족의 월수입, 월피복비)의 영향을 분석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衣服所持實態에 관한 研究

의복은 구입, 소지, 사용, 보관, 폐기라는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고 소비된다. 이러한 의복의 소비사이클을 파악하는 것은 의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日本家庭學會, 1992). 일본에서는 일본의료관리협회에서 1979년 이후 매년 일본의 "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의료관리협회의 1979~1987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小林茂雄(1985)은 소비자 조사와 의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소지수의 변화와 의복품목별 변화 추이를 조사 보고하였고, 川崎健太郎(1987)은 의복품목별 소지수와 그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또한 소지수와 변동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이템별 변동률은 평균소지수와 역상관을 가짐을 지적하였다(川崎健太郎, 1992).

1994년 일본의료관리협회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평균소지수(106.09매)가 가장 높았고 학생(79.44매), 아버지(65.34)의 순이었으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쇼츠팬츠와 같은 가벼운 의류와 캐주얼 품목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투피스, 자켓류와 같은 무게감이 있는 품목과 스웨

터, 가디건 등의 니트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日本衣料管理協會, 1994).

우리 나라에서의 의복구매실태에 관한 연구(정혜영, 1983; 송미령, 1988; 이주은·임숙자, 1993)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에 관해서는 강혜원·고애란(1987)이 여대생의 의복 목록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밖에는 의복관리실태에 관한 연구들(신은주·차옥선, 1991; 신상옥, 1976; 이금실·문영애, 1984)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의복소비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의복소비실태에 있어서 세대간(대학생과 부·모)의 차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 등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하여 비교적 많이 착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복품목을 선정하여 소지수, 소지기간, 착용일수, 사장의복수, 구입가격 등을 조사하여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衣服消費實態와 關聯變因

생활양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또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다(Engel & Blackwell, 1982). 의복은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의 표현방법이다(Silberman, 1971; Kefgen, 1976). Jarnow와 Judelle(1974)도 의복의 패션은 가장 쉽게 한 시대의 사상이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패션의 연속적인 변화는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이러한 의복과 관련된 생활양식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혀주고 있다(정복희·박은주, 1993; 원선·강혜원, 1988; 박선미, 1988).

井關利明(1993)은 의생활양식을 남·여별로 분류하였다. 여성의 경우 사치엔조이형, 사치 무관심형, 캐주얼 애호형, 의복비 부족형, 일본고유의상애호형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있어서 의류소지패턴, 착용패턴과 같은 의복소비행동과 패션의식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유형별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 ① 사치엔조이형 : 모든 종류의 의류품에 있어서 소지수가 많고, 신제품 지향이 높다. 복장에 관심이 높으며 고학력 주부가 많다.
- ② 사치무관심형 : 모든 종류의 의류품에 있어서 소지수가 적고, 복장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주부가 이 부류에 많이 속한다.
- ③ 캐주얼 애호형 : 젊은 직장여성과 학생이 많으며, 캐주얼웨어의 소지수가 많다. 진을 많이 입으며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차별화 지향도 강하다.
- ④ 피복비 부족형 : 젊은 저학력층이 많고, 전반적으로 의류 소지수가 적다.
- ⑤ 일본고유의상애호형 : 주로 50~60대 고연령층이며 일본옷을 많이 갖고 있다. 캐주얼웨어 소지수가 적고, 복장에 대한 관심이 적다.

또한 1994년 일본의료관리협회의 의료사용실태 해석사례에서 보면 구매시 선택기준에 따라서도 의복소지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日本衣料管理協會, 1994). 예를 들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 블라우스를 구입할 때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블라우스 소지수(13매)뿐 아니라 전체 의복 소지수도 가장 많았다(100매). 사이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의복을 소지하고 있었으며(86매),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의복 소지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71.6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복소지 및 착용패턴 등으로 나타나는 의복소비행동이 소비자의 의생활양식과 구매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調查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 방식이며, 설문지는 크게 의복소비에 관한 문항, 의생활양식 및 개인적 환경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衣服消費와 關聯된 變因

의복소비에 관한 질문은 일본의료관리협회의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로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는 의복소지 및 의복구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소지에 관한 질문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착용한다고 여겨지는 外衣와 中衣 18품목에 대한 소지수, 평균착용일수, 소지기간, 사장의복수 등을 포함하며, 의복구매에 관해서는 평균구입가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衣生活樣式에 관한 質問

선행연구(정복희·박은주, 1993; 원선·강혜원, 1988; 박선미, 1988)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평정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3) 環境變因

환경변인으로는 가족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피복비를 조사하였다.

2. 資料收集 및 分析方法

1) 調查方法

연구의 성격상 의복에 관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Delphi조사방식류가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의류학과 가정학을 전공하는 여자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準 Delphi 조사방식을 택하였다.

2) 調查對象 및 資料收集

1995년 10월 9일~10월 14일에 걸쳐 가정학 전공 여자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의류학과 가정학을 전공하는 여자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1995년 10월 30일~11월 1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150부의 설문지 중 112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내용이 잘못되거나 불충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94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3) 分析方法

연구과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였다. 전체의복 및 의복품목별 소지수를 알아보고, 소지하고 있는 의복의 사용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의생활양식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의생활양식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복소지수와 의생활양식의 차원 및 의복구매관련변인과 환경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衣服 所持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품목과 품목별 소지수 및 평균소지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70매 정도의 의복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폴로·T셔츠의 평균소지수가 11.3매로 가장 많은 품목이었으며, 긴 바지를 두 번째로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 소지수가 많은 품목은 캐주얼 셔츠, 블라우스, 자켓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캐주얼 품목의 소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피스, 투피스, 펜츠슈트를 적게 소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이 여자 대학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료관리협회의 1994년 조사와 강혜원(1987)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 캐주얼 품목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2. 所持衣服의 使用 效率性

소지하고 있는 의복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첫째 의복품목별 소지수와 일치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장의복수를 파악하고, 사장수를 소지수로 나누어 사장율을 산출

<표 1> 의복품목과 所持數

품 목	소지수	평균소지수	순 위
원피스	186	2.0	15
투피스	233	2.5	13
팬츠슈우트	94	1.0	18
블라우스	494	5.3	4
자켓	469	5.0	5
스커어트	304	3.2	10
슬렉스	212	2.3	14
점퍼	241	2.6	12
조끼	369	3.9	8
스웨터	372	4.0	6
가디건	378	4.0	6
캐주얼셔츠	528	5.6	3
폴로·T셔츠	1,058	11.3	1
긴 바지	646	6.8	2
반 바지	322	3.4	9
트레이닝복	190	2.0	15
코트류	301	3.2	10
잠옷류	175	1.9	17
합계	6,572	70.1	

주: 1) 슬렉스는 정장용 바지, 긴 바지는 캐주얼한 면 바지나 Jean류를 말함.

<표 2> 所持數와 死藏 衣服數

품 목	소지수 (평균소지수)	사장수 (평균사장수)	사장율 (%)
원피스	186(2.0)	30(0.3)	16
투피스	233(2.5)	29(0.3)	12
팬츠슈우트	94(1.0)	9(0.1)	10
블라우스	494(5.3)	52(0.6)	11
자켓	469(5.0)	44(0.5)	9
스커어트	304(3.2)	78(0.8)	26
슬렉스	212(2.3)	26(0.3)	12
점퍼	241(2.6)	42(0.4)	17
조끼	369(3.9)	33(0.4)	9
스웨터	372(4.0)	41(0.4)	11
가디건	378(4.0)	48(0.5)	13
캐주얼셔츠	528(5.6)	51(0.5)	10
폴로·T셔츠	1,058(11.3)	97(1.0)	9
긴 바지	646(6.9)	99(1.1)	15
반 바지	322(3.4)	47(0.5)	15
트레이닝복	190(2.0)	23(0.2)	12
코트류	301(3.2)	27(0.3)	9
잠옷류	175(1.9)	16(0.2)	9
총합계	6,572(70.1)	792(8.4)	12

다.

이상과 같이 사장율로서 품목별 사용 효율성을 살펴보면, 스커어트가 가장 사용 효율성이 낮은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원피스, 투피스, 긴 바지, 반 바지 등의 순으로 비효율적으로 착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폴로·T셔츠류, 자켓 및 조끼는 소지수가 많으면서도 사용 효율성이 높은 품목이며, 코트류나 잠옷류는 작게 소지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착용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平均着用日數와 平均購入價格

소지기간을 고려한 단위가격당 착용일수, 즉 소지기간과 평균착용일수와의 곱을 구입가격으로 나누어 구입비용 단위당 착용일수(일×년/만원)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긴 바지, 반 바지, 트레이닝복, 캐주얼셔츠, 폴로·T셔츠류 및 스웨터 등의 캐주얼

하였고, 둘째 평균착용일수와 소지기간 및 평균 구입가격을 조사한 결과로 소지기간을 고려한 단위가격당 착용일수(일×년/만원)를 측정하였다.

1) 衣服所持數와 死藏衣服數

의복품목별 소지수와 사장의복수를 비교하여 사장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사장의복수가 8.4매 정도로서 이는 전체 소지의복의 12% 정도가 착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의복품목별에 따라 8~26% 정도의 사장율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스커어트의 사장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원피스, 투피스, 점퍼, 긴 바지, 반 바지 등의 순으로 사장율이 높았다. 반면 코우트류, 잠옷류, 폴로·T셔츠류 및 자켓 등이 다른품목에 비해 사장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의복품목별 단위가격당 착용일수

품 목	평균착용일수 (일)	평균소지기간 (년)	평균구입가격 (만원)	단위가격당 착용일수 (일×년/만원)
원피스	9.1	1.3	7.0	1.7
투피스	8.0	1.4	11.8	0.9
팬츠슈우트	18.0	1.2	11.8	1.8
블라우스	23.1	1.2	3.2	9.1
자켓	63.0	2.3	13.7	10.6
스커어트	20.4	2.5	4.6	6.7
슬랙스	32.8	1.4	5.4	8.5
접과	26.3	2.4	8.5	7.4
조끼	23.6	2.1	5.8	8.5
스웨터	42.5	2.1	4.8	18.6
가디건	24.5	1.4	4.0	8.1
캐주얼셔츠	51.3	2.5	3.3	38.9
폴로·T셔츠	48.7	2.6	3.0	34.7
긴바지	177.0	2.5	5.0	88.5
반바지	27.7	2.2	1.1	55.4
트레이닝복	73.1	2.5	3.7	49.4
코트류	28.8	2.0	15.2	3.8
잠옷류	40.5	0.8	1.4	21.9

얼 품목과 잠옷류가 단위가격당 착용일수가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피스, 팬츠슈우트, 원피스 등의 정장류와 코트류 등은 단위가격당 착용일수가 낮은 품목이었다.

즉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정장류는 구입할 때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만 실제 자주 착용하지는 않으므로 사용 효율성이 낮고, 반면 긴 바지, 캐주얼셔츠, 폴로·T셔츠류 등의 캐주얼 품목은 구입가격에 비해 많이 착용하므로 사용 효율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피스와 투피스 등의 정장류는 사장을, 단위가격당 착용일수 모두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폴로·T셔츠와 잠옷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었다. 긴 바지와 반 바지는 비교적 사장은 높았으나 단위가격당 착용일수로 보았을 때에는 사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류의 경우 단위가

격당 착용일수가 낮은 것은 계절품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衣服所持數에 影響을 주는 關聯變因들

1) 衣服所持數에 대한 衣生活樣式의 影響

의생활양식 변인에 대해 유효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의생활양식 인자와 의복소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衣生活樣式에 대한 因子分析

의생활양식에 대한 인자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고, 인자의 수는 고유값 1의 기준과 Scree-test를 함께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회전시킨 후의 인자분석결과와 해당분항 및 인자의 명칭은 <표 4>와 같다.

<표 4> 의생활양식에 대한 인자분석결과

의생활양식 문항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인자 5
인자 1 : 유행 · 개성 추구성 · 내가 소지하고 있는 옷은 대부분 유행을 앞서가는 것들이다. · 친구들에 비해 새로 유행하는 옷을 먼저 입는 편이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입지 않는 색다른 옷을 입는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 독특한 디자인이나 대담한 악세서리 등 주위의 시선을 끄는 옷을 주저없이 입는다.	.8262 .8164 .7277 .6546	.0318 -.1393 -.0895 -.0293	-.1236 .0946 .0689 -.0437	.0481 .0724 .3895 .1314	-.1778 -.1275 .0874 -.2688
인자 2 : 경제 추구성 · 항상 계획에 의해 필요한 옷을 구입한다. · 짜여진 예산하에서만 필요한 옷을 구매한다. ·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옷을 구입한다. · 옷을 살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옷과 맞추어 입을 수 있나를 고려한 후 구입한다.	-.0012 -.1806 -.2517 .2968	.8793 .8318 .5754 .5213	.0661 -.0113 -.2656 -.1706	-.0609 -.1390 .0759 .2121	.1009 .0524 .2735 -.2097
인자 3 : 브랜드 지향성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유명 상표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복이 나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므로 옷을 살 때 상표선정을 신중히 한다. · 유명상표의 옷을 좋아한다.	-.1494 .1305 -.0397	.0045 -.0174 -.1062	.8369 .7839 .7437	.1337 .0592 .1316	-.1685 -.0091 .0976
인자 4 : 의복관심 · 옷을 통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 옷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 옷을 살 계획이 없어도 어떤 옷들이 있는지 옷 가게를 가끔 둘러보고 싶다.	.2380 .0045 .1947	-.0967 .0992 -.0522	-.0046 .1446 .2139	.8060 .7074 .6944	.1018 -.2450 -.0271
인자 5 : 편안함 추구성 · 유행하는 옷이 아니더라도 입어서 편한 것이면 산다. · 유행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는다. · 겉모양이 좋은 옷보다는 관리나 세탁하기 편한 옷을 선택 한다.	-.1797 -.2212 -.0481	-.0728 .0779 .3594	-.1819 .0189 .1097	.1361 -.2115 -.0796	.8460 .6881 .5441
고 유 치	3.9033	2.2771	2.0751	1.5747	1.1123
전체변량의 %	23.0	13.4	12.2	9.3	6.5
누적변량의 %	23.0	36.4	48.6	57.8	64.4

인자 1은 의복의 유행 및 의복을 통한 개성표현을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유행·개성 추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인자 2는 의복구매시 계획구매 및 적절한 예산하에서의 구매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 추구성'을 나타낸다. 인자 3은 의복의 상표와 관련된 문항들로서 '브랜드 지향성'이라고 하였다. 인자 4는 의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복관심'이라고 하였고, 인자 5는 의복선택시 편안함을 중요시 여기는 문항으로 '편안함 추구성'이라 명명하였다.

인자별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유행·개성 추구성 인자가 전체 변량의 23.0%를 차지하여 의생활양식의 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경제추구성 인자가 전체 변량의 13.4%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인자였으며, 그 다음 브랜드 지향성(12.2%), 의복관심(9.3%), 편안함 추구성(6.5%) 인자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인자에 의한 전체변량의 설명력은 총 64.4%로서 의생활양식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衣服所持數와 衣生活樣式과의 관계

평균 의복소지수(69.9매)를 기준으로 의복소지수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으로 전체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의생활양식 구성인자(유행, 개성 추구성, 경제 추구성, 브랜드 지향성, 의복관심, 편안함 지향성)에서 어떤 인자가 두 집단의 의복소지수의 차이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

체 의복을 캐주얼과 정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평균소지수(캐주얼 : 43.6, 정장 : 23.3)를 기준으로 캐주얼복을 많이 소지한 집단·적게 소지한 집단, 정장을 많이 소지한 집단·적게 소지한 집단으로 나누어 의생활양식 구성인자 중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으며 판별분석의 정확도는 58~70%로 나타났다.

<표 5>의 결과에서 보면 전체의복소지에 대해서는 의생활양식 구성인자 중 유행·개성 추구성, 경제 추구성, 브랜드 지향성 인자가 의복소지를 판별하는 인자이었으며, 그 중에서 유행·개성 추구성 인자가 판별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복 중 캐주얼류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의생활양식 변인 중 브랜드 지향성, 경제 추구성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장류에 대해서는 유행·개성 추구성 인자만이 판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생활양식 구성인자 중 유행·개성 추구성, 경제 추구성, 브랜드 지향성 인자가 의복소지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의복을 캐주얼과 정장으로 나누어 분석해 봤을 때, 캐주얼복 소지에 대해서는 브랜드 지향성과 경제 추구성이 영향을 미치는 의생활양식 변인이었고 정장류의 경우는 캐주얼류와는 달리 유행·개성 추구성인자가 그 소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衣服所持數에 대한 衣服購買行動變因 및 環境變人의 影響

환경변인으로서 월수입과 월피복비 지출, 그리

<표 5> 의복소지에 대한 의생활양식의 판별분석 결과

의복소지	의생활양식 변인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분석의 정확도(%)
전체의복	유행·개성 추구성	.8432	70.7
	경제 추구성	-.4305	
	브랜드 지향성	-.4001	
캐주얼류	브랜드 지향성	.7920	58.5
	경제 추구성	.7829	
정장류	유행·개성 추구성	1.0000	62.3

* 모든 판별계수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 표준화된 판별계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판별력이 큰 변인이다.

<표 6> 의복구입가격에 따른 의복소지수

의복 구입 가격		10만원 미만 (n=25)	10~20만원 (n=41)	20~30만원 (n=19)	30만원 이상 (n=8)	분산 분석 (F 값)
의복소지수	M	52.56	74.15	70.16	104.25	3.9422*
	S	B	AB	AB	A	

M: 평균, S: Scheffe test 결과.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구입가격: 봄·여름용 외출복 한벌 구입가격.

고 의복구매 행동변인으로서 구입가격이 의복소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수입과 월필복비 지출 등의 환경변인에 따라서는 의복소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구매행동변인인 구입가격에 따라서는 의복소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전체적으로 볼 때 30만원 이상의 高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집단이 평균 의복소지수가 104매로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 집단과 20~30만원 미만 집단은 각각 평균적으로 74매, 70매의 의복을 소지하고 있었고, 10만원 미만의 低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집단이 52매로 의복소지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30만원 이상 집단과 10만원 미만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高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低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의복소지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편이었다.

V. 結論 및 提言

1. 여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70매 정도의 의복을 소지하고 있었다. 폴로·T셔츠, 긴 바지, 캐주얼 셔츠 등 캐주얼 품목의 소지수가 많았고, 원피스, 투피스 등 정장류는 소지수가 적은 품목이었다.
2. 전체 소지의복의 12%(8.4매)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율과 단위가 격당 착용일수로 보았을 때 원피스, 투피스 등의 정장류는 비효율적으로, 폴로·T셔츠와 파자마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었다. 긴 바지와 반 바지의 경우는 사장율은

높았으나 구입가격에 비해 착용일수는 많았다.

3. 의복소지와 의생활양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복소지에 대해서는 의생활양식 인자 중 유행·개성 추구성, 경제 추구성, 브랜드 지향성 인자가 의복소지를 판별하는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체의복을 캐주얼과 정장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캐주얼에 대해서는 의생활양식 인자 중 브랜드 지향성과 경제 추구성이, 정장류에 있어서는 유행·개성 추구성 인자가 의복소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복구매행동 변인 중 구입가격만이 의복소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즉 高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이 低價의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의복소지수가 많았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여자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도 포함시켜 세대간의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의복소지 및 사용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의복소비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강혜원·고애란, 여대생의 의복목록 비교분석 -1976~1986년 사이의 변화추이-, 연세대학교 생활 과학논집, vol 1., 1-13, 1987.
2. 김동기, 현대마케팅원론, 박영사, 339-348, 1993.
3. 박선미, 의생활양식과 생활양식의 분석을 통한 의복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

-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4. 송미령,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12(1), 53-68, 1988.
 5. 신상옥,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879-889, 1976.
 6. 신은주·차옥선, 도시가정의 의복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 연구, vol 9., 5-23, 1991.
 7. 원선·강혜원, 의복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 20~30대 여성의 의복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3), 309-318, 1988.
 8. 이금실·문영애, 주부들의 의복행동과 피복관리에 대한 태도 및 관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1), 87-97, 1984.
 9. 이주은·임숙자, 의복구매동기에 따른 점포 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993.
 10. 정복희·박은주, 의류점포선택과 관련변인 연구 / 의생활양식과 점포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2), 207-217, 1993.
 11. 정혜영,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실태분석 /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1), 1983.
 12. 小林茂雄, 消費者調査と衣生活,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6(11), 459-463, 1985.
 13. 日本家政學會, 衣服の供給と消費, 朝倉書店 1992.
 14. 日本衣料管理協會, 衣料の使用實態調査解析事例, 1994.
 15. 日本衣料管理協會, 衣料の使用實態調査, 1994.
 16. 井關利明, ニコ-ファミリ-のはれとけに 注意, フレシテント, 1976, in 김동기, 현대마케팅원론, 박영사, 339-348, 1993.
 17. 川崎健太郎, 衣料消費統計のある見方 -女子大生のワ-トロ-フ調査より-,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8(7), 261-265, 1987.
 18. 川崎健太郎, 衣生活, No.1, 38, 1987, in 日本家政學會, 衣服の供給と消費, 朝倉書店, 18, 1992.
 19. Engel, J. E., & R.D. Blackwell, *Consumer Behavior*, 4th ed., The Dryden Press, 1982.
 20. Jarnow, J.A., & B. Judell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2nd ed., New York: John Willey and Sons Inc., 1974.
 21. Kefgen, M., &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22. Silberman, C.E., *Identity Crisis in the Consumer Market*, 1971, in M. Kefgen &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30, 1976.